

혁신도시에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

전주시, 12월까지 90억원 투입 혁신동 주민센터·기지제 수변공원 일원에 조성 추진 주민 정주여건 개선 위해 다담센터·어린이 생태체험장·풋살장·테니스장 등 마련

전주 혁신도시 기지제 일원에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혁신동 주민센터와 기지제 수변공원 일원에서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공기관 이주 직원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기지제 다담센터 △기지제 어린이 생태체험장 △기지제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체육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지제 다담센터의 경우 어린이 돌봄 공간과 가족 카페 등으로 구성돼

육아와 돌봄, 나눔, 가족 여가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기지제 어린이 생태체험장은 바닥분수와 유아 놀이터, 휴게센터 등 교육·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지제 수변공원에는 풋살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체육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번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승 전주시 공원관리과장은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내 부족한 문화·여가시설과 보육·육아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혁신도시 기지제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 구상도.



따뜻한 전주 만들기 '앞장'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정기회의 가져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올해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서 따뜻한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4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35개 동에서 추진했던 행복동네 만들기 특화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정원선 회장은 "각 동 위원장들

과 힘을 합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활성화 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올해에도 한 명의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재 전주시 35개 동 54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시, 국·과장급 인사 단행

최현창 신임 덕진구청장 등

전주시가 5일자로 국장(4급)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명단 15명

먼저, 덕진구청장에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국장 기획조정국장은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각각 발령됐다.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신성장(회원대경제국장), 김봉정 신성정경제국장은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한



다.

또한, 교육을 바친 박용자 국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장병호 덕진구청장은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은 교육에 들어가고, 직위승진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생태도시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한편, 시는 국장급과 함께 과장(5급)급도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20만원 지원

전주시는 잠시 중단됐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이 사업은 신청 폭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단됐다.

지난해와 대비해 600만 원의 도비를 추가 확보한 시는 올해 1억4600만 원을 들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730명에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교통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이미 반납한 경우라면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취소 결정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카드의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카드를 제공되며,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마이비 가맹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억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70세 이상 고령자 1840명의 운전면허를 반납 받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위탁 운영기관 모집

25~27일까지 제안서 접수... 현재 내부 리모델링 중 5월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완공

전주시가 도내 우수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의 개장을 앞두고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을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 303-188번지 일원 등 (구)남부시장 원예농협 건물 자리에 1511㎡ 규모로 조성되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은

은 전라북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비롯해 제로웨이스트(ZeroWaste) 매장, 식음료 판매 공간, 공연장 등을 갖춘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오는 5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수탁기관은 최소 10개 이상의 전북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제로웨이스트와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는 가운데 공연·체험 등 남부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한다. 위탁 예정가격은 1년에 약 880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참가 자격은 전북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중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설에 직접 상주해 직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다. 2개 업체 이내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희망 법인·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

(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등을 작성한 뒤 전주시 일자리창출정책과 전통시장육성팀(완산구 풍남문1길 19-3, 2층)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시는 다음 달 10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점수가 총 70점 이상인 법인·단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해 다음 달 내로 최종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